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등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을 발간해 온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회장혜담 스님)가 네번째 자료집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공간, 정화운동 당시 불교계에서 활동하였던 생존인물들의 생생한 육성을 채록해 놓은 구술 자료집이다. 하지만 애초 목적은 지난 54년부터 7년까지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류로 이어진 정화운동에 참여하거나 목격한 인물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1부나 해방공간의 불교계를 다룬 2부에 비해 3부 내각정화운동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법원에서 원판결(비구승 승소)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1990.11.24) 비구승은 크게 반겼다.

불교정화운동 생생한 육성채록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발간

정화운동이 교단풍토나 사찰경제, 불교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활동했던 생존인물들의 생생한 육성 채록은 향후 정화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현대 불교사의 산증인으로 알려진 석주, 용명, 설산 스님을 비롯해 정화의 실무를 맡았던 정영, 송산, 월주 스님, 비구니로서 정화운동에 참여한 덕수, 보인, 정화 스님 등 16 스님과 6명의 재가자가 인터뷰 대상이다. 한 개인의 삶을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

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들춰지기도 했다. 일제시대인 1910년 원종의 대종정을 지낸 회광 스님의 1920년대 중반 이후 말년

나이 어린 비구니 스님들이 정화의 숨은 공로자였음을 밝힌 구설도 관심이 쏠린다. 증언의 사료로서의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화 운동에 대해서는 주류측의 긍정적 평가와는 엇갈린 시각도 존재하는데 인터뷰 대상자가 조계종 소속 스님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 작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정화에 관여한 인물들의 생생한 육성 자체가 현재의 불교계에 대한 성찰과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23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석주스님등 스님 16·재가자 6명 인터뷰

증언대상자 편중돼 객관성 확보에 한계

행적을 조카인 이종관, 이종연 씨를 통해 밝혀낸 것이 대표적이다. 덕수, 보인, 정화 등 비구니 스님들이 정화 당시 17~18세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국내 첫 영문불교학술지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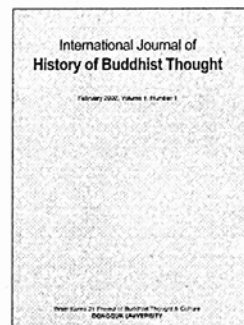
동국대 BK21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 of Buddhist Thought'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문불교학술지가 나왔다. 동국대 두뇌한국(BK)21 불교문화사상교육단(단장 조용길)은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 of Buddhist Thought>(국제 불교사상사 저널)를 창간하고 최근 첫 호를 선보였다.

1924년 스톱스키 다이세츠가 창간한 영문학술지 <Eastern Buddhist>가 일본 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감안할 때 국제학술지 창간은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인문학 분야의 영문학술지는 지난해 창간된 <국제 한국사 저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저널>(성

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등 7~8종이 있으나 학술진흥재단에 영문학술지로 등재(후보된 인문학 분야의 학술지는 <Korea Journal>(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문으로 발행된 국제불교학술지.

사나 한역 경전 등은 논문 끝부분에 한자 표기를 따로 모아 놓았다.

편집위원은 미국, 인도, 노르웨이, 일본, 태국, 한국 등 6개국 불교학자 11명으로

대 바트(대승불교), 일본 토요카쿠대 찰스 윌러(한국불교), 태국 어섬선대 유세프(비교종교학),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박노자(대승불교) 교수가 참여했다. 외국 교수들은 대부분 한국불교나 대승불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다.

창간호에는 미국 뉴욕 스톤브룩대 박성배 교수와 인도 델리대 바트 교수 등 해외 학자 논문 5편과 국내 학자 논문 11편 등 모두 16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중 3편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에세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제선(동국대) 교수는 "송산 스님 등의 해외 포교로 한국불교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외국 불교학계에 한국 불교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한국 불교학의 존재와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년 2회 발행... 편집위원 6개국 학자 11명 해외학자 논문 5, 국내 11편 등 16편 수록

<The Review of Korean Studies>(한국정신문화연구원) 2종뿐이다. 앞으로 연 2회 발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 불교사상사 저널>은 모두 영문 원고로 짜인다. 다만 고유명

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편집위원장 김용표, 해주 스님, 계한 스님, 조용길 등 동국대 교수와 강건기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미국 UCLA대 로버트 버스웰(한국불교), 인도 델리

경주 남산유적 총망라

경주문화재연 '종합도록' 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경주 남산>종합도록.

연구소 직원들이 200여 차례 발품을 팔아 완성한 도록은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과 선사유적, 왕릉, 산성, 고려·조선시대 유물, 민속의례 등을 총망라했다. 현재 경주 남산에 있는 문화재뿐 아니라 박물관 등으로 옮겨진 중요 문화재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이번 해설편에는 각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록

다. 남산의 전체 불상에 대한 3차원 실측도면은 종합정밀학술조사보고서(2003년말 예정)에 담을 계획이다.

또 194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에 대한 최초의 조사 보고서인 <경주 남산의 불적> 전문을 번역해 부록으로 실었다. 금석문 자료와 고대 문헌자료는 물론 연구논문, 저서 등 남산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최대한 모아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도록편에는 현장 조사 시 새로 발견한 보리사 석불좌상(보물 136호)의 광배 비친상과 남산신성비 제10호, 남산토성과 도당토성의 판축 구조 등 816장의 사진과 탁본이 담겨져 있다. 불상은 정면, 측면, 배면 등 다양한 세부사진을 실어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절터 140곳·불상 80구 등 672곳 산재 박물관 소장된 주요문화재도 수록

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경주 남산을 한 눈에 정리한 종합보고서다. 2년 전 도록편이 먼저 나왔고, 이번에 해설편이 발행돼 2권 1질의 도록이 완성됐다.

본자료 외에 161장의 사진과 도면이 추가됐다. 특히 불상도면 4장은 3차원 레이저로 촬영한 실측도면으로 3차원 영상 복원이 가능해 문화재 훼손 시 복원에 활용할 수도 있다.

원효 '판비량론' 필사본 국역

김성철 동국대 교수 '불교원전연구 2집'에 발표



지금까지 해독불가능 부분 판독 잘못 번역·탈자 부분 바로 잡기도

동국대 김성철(사천) 교수가 원효의 <판비량론>(判非量論) 필사본 전문을 처음으로 번역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이 발행하는 반년간 학술지 <불교원전연구> 2집에 발표했다. 필사본만 일본에 전하는 <판비량론>은 44절로 추정되는 전체 분량 중 제8절~13절만 전문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성철 교수는 그 동안 판독 불가능했던 글자를 판독해 내고 기존 연구자들이 잘못 판독한 글자를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 <판비량론>의 의미 해석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토대로 김 교수는

<판비량론>은 도처에서 현상이 소개했던 호법의 유식학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치밀한 논리를 구사하며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판비량론>은 당 나라 현상이 번역한 호법의 <성유식론> 비판을 통해 현장과 호법을 한꺼번에 비판하는 저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제9절과 11절, 12절의 재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아뢰야식(제8식)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다룬 제9절이 지금까지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못한 것은 논증식 "...

必有舌身意識不攝餘別識□三六門中..." 가운데 □를 '체(體)'가 아닌 '비(非)'로 잘못 판독한 후 의미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7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초서체 '체(體)'자와 □자의 남아 있는 부분을 비교해 본 김 교수는 □에 들어갈 글자가 우측 하단이 훼손된 '체(體)'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체(體)'로 볼 경우 앞 문장에 붙여서 해석하지만 '非'일 경우는 뒤 문장과 함께 해석하기 때문에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2절의 '有通解者 隨而爲□의 □도 '주(住)'가 아니라 '신(眞)'으로 번역해야 하며 이는 곧 '현상과 호법의 교화 수준에 대한 원효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말했다.

간(肝)의 건강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좁은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자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참다슬기 농축액 : 자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수할 다슬기를 죽은 것만 걸러내고 끓여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참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참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참다슬기 기증 : 참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참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참다슬기 기증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이말라야 석청 탐사 대원 모집



- ◆ 일 시 : 2002년 5월 25일 ~ 6월 4일
- ◆ 대상지 : 네팔 이말라야 일원
- ◆ 모집인원 : 사부대중 (약간명)
- ◆ 문의처 : 전화 051)442-1814 051)461-0064
- ◆ 주 최 : 부산등산연구소
- ◆ 후 원 : 네팔 아시안 트레킹

포교용 신도용

저서

출간해드립니다

불교도서진흥사 02)722-8125

감사의 말씀

대한불교법화종 직할교구 총무원장 취임법회

:: 법문가요 발표회 ::

지난 4월 8일 [장소 : 세종홀] 위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왕림하시어 격려와 위로로 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먼저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하시길 합장 배례 하옵니다.

불기 2546 (2002)년 4월 10일

대한불교법화종 직할교구 총무원장 법만 합장

법만사 02)433-6591~2